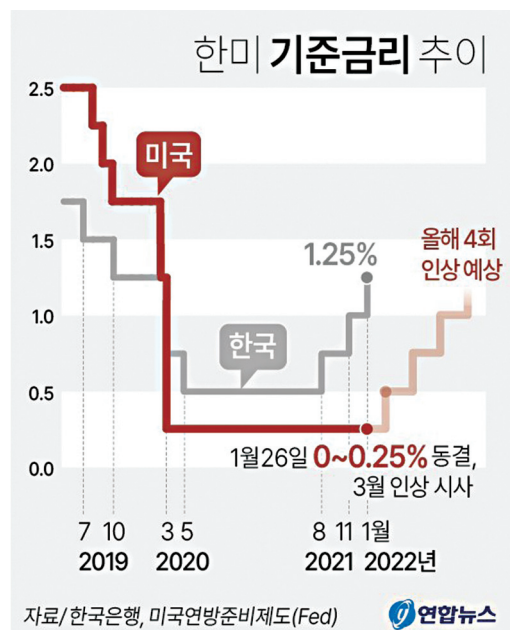


특특뉴스

테슬라, 작년 6조6천억원 최대 순익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다. A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직후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3억2,000만 달러(2조7,800억 원)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55억 달러(약 6조6,000억 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은 2.52달러로, 금융정보업체 레피타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2.36달러)를 웃돌았다. 4분기 매출도 177억2,000만 달러(21조2,300억 원)를 올려 월가 예상치(165억7,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65% 많다.

그래픽 경제



미 연준, 기준금리 3월 인상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일(현지시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미 연방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고용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CNBC는 3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고, AP통신은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이라고 전망했다.

3년 내 시가총액 1조 ‘유니콘기업’ 목표



‘후코이단’ 추출 독보기술
국내 유일 ‘분자별 생산’
면역력 제품 ‘수출 호황’



해원바이오테크 연구실에서 직원들이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체내 중금속·미세먼지 배출을 도와주는 ‘Haewon 해조8차’(왼쪽)와 체력유지·체질개선·영양보급에 탁월한 ‘푸코셀-알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의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년간 묵묵히 해양생물 전문기업으로의 해외 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지역기업이 있다. 세계 3대 다시마 생산지로 유명한 완도군 금일도 월송리 해변에 있는 해양생물 전문기업 (주)해원바이오테크(대표 강혜숙)는 갈조류인 다시마, 미역, 툇, 모자반, 곰피로부터 함황다당체인 후코이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생산해 세계 해양바이오 신소재 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영향으로 면

역력 관련 제품들이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 등에 관련 제품의 수출호황을 맞고 있다. 오는 2025년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해양소재 연구개발 전문
2002년 국내 최초로 갈조류에서 분리 정제한 함황다당체인 후코이단을 소재화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식품, 동물 사료 등에 사용하는 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또 대형조류뿐 아니라 미세 조류 분야에서도 해원바이오테크는 앞서가고 있다. 항산화기능이 비타민 C의 6,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타잔틴 소재화를 위해 헤마토코쿠스 균주를 배양해 대량 생산 및 소재화했다. 헤마토코쿠스추출물(아스타잔틴)은 인체 기능에 유익한 물질로 뇌건강, 눈건강 등에 기능성 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화장품용 비누, 동물 사료 등의 사료 첨가제로도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원료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에도 기대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물질 개발
후코이단 같이 황산기를 가진 해조 유래 다당체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코이

단은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부착 억제, 세포내로 투과 억제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억제해 바이러스 감염을 방해하고 바이러스로 감염시 나타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 면역기능을 증진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식균 작용을 높여주고 혈전을 억제해 주는 기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 따라서 해원바이오테크에서는 후코이단 외에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다양한 성분들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물질을 개발하여 제품에 활용하고 있다.

◇콜라겐펩타이드·실크펩타이드 생산
(주)해원바이오테크는 물고기 비늘(어린), 껍질, 뼈 등으로부터 콜라겐 펩타이드를 소재화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특히 연어로부터 연어이리단백을 생산해 국내외 판매를 개시했으며, 연어 정소로부터 DNA 핵산, 콜라겐, 뮤코다당 등을 소재화해 최근 준공된 경기도 부천 제3공장에서 생산에 돌입, 국내외에 원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실크(누에)에서 기능성 물질인 실크펩타이드를 곤이어 생산할 예정으로, 앞으로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혜린 기자

“해조류 기술 통한 탄소중립 지향”

강혜숙 해원바이오테크 대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코이단(Fucoxanthin)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시킨 선두주자로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저

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강혜숙 (주)해원바이오테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구강관리 시장이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치주염 예방을 목적으로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알지푸코(AlgaeFuco) 치약을



음이 되는 기능성 치약이다”며 “해외 거래처들이 기존 수출제품들에 대해 높은 평가해 수년 전부터 치약개발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알지푸코 치약은 충치 예방은 물론, 구강 청결과 구취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치약이다”며 “해외 거래처들이 기존 수출제품들에 대해 높은 평가해 수년 전부터 치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던 것으로 중국, 일본 등 현지 유통업체들과 이미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어 “연어 콜라겐은 연어DHA 성분으로 피부세포치료에 도움을 주며, 피부염증 및 주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사의 연어 콜라겐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업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한다”며 “이미 러시아, 미국 시장 관심 업체와 협의 중이다”고 귀띔

했다.
해원바이오테크는 GMP 수준의 콜라겐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토종균주인 헤마토코쿠스에서 아스타잔틴 소재화에 성공, 대량 생산라인을 준비 중이다.
한편, 강 대표는 “해양생물을 주원료로 한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1조원의 유니콘 기업 달성뿐 아니라, 해조류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지향에도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혜린 기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호랑이 기운아 숫아라. 숫아라!

임인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골드클래스(주) 골드디움(주) 보광종합건설(주) 골드종합건설(주)